

## < 제 1 장 >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을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인 영원으로 시작하고 있다.

‘태초’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분의 본질을 밝히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창조 이후에 등장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피조물의 종교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적 사역이다.

### 1. “태초” ((ἀρχή 레쉬트 / ἀρχή 아르케)

성경은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태초’(ἀρχή 레쉬트) : 첫째. 처음. Beginning. 시작.

막연한 과거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작하신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즉 ‘레쉬트’는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과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시작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뜻을 품으셨고, 그 뜻이 때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나타내시고, 해와 달을 두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 ‘실현’의 출발점이 ‘레쉬트’이다.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Ε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엔 아르케 엔 오 로고스)

‘말씀’(λόγος 로고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태초”를 다시 사용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육신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구속 사건이다.

창1:1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레쉬트)하셨다면, 요1:1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아르케)하신 것이다.

“태초”(ἀρχή 아르케) : 태초. 시작. Beginning. 원인.

요한복음의 ‘태초’(ἀρχή)는 창세기의 ‘레쉬트’(רֵשֶׁת)와 연결되면서도 그 의미가 더 확장된다.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케’는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와 구속 역사의 ‘출발점’(starting point)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시작은 반드시 ‘끝’(τέλος 텔로스)을 향하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끝’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레쉬트’는 우연한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그 끝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ἀρχή)과 마침(τέλος)이라>

‘아르케’는 단순한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끝’(τέλος)인 완성을 염두에 둔 시작이다.

창1:1 ‘레쉬트’와 다른 것은, ‘아르케’는 시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르케’의 시작은 창세기의 ‘레쉬트’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 43:19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 ‘새 일’은 창1:1의 ‘창조의 시작’(레쉬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새로운 시작’(아르케)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시작하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친히 구원자로 오셨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시작’인 ‘아르케’(ἀρχή)이다.

<계 21:2-3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태초’(ἀρχή)는 창조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구속 역사의 출발점이다.

## 2. “말씀” (λόγος 로고스)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λόγος)는 말, 교훈,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이성적 원리로서 말씀이나 계시를 의미하며, 또한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는 원리를 뜻한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이며 능력이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로고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과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며,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되며, 로고스를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로고스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뜻이 표현된 창조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로고스’(λόγος)와 ‘레마’(ῥήμα)이다.

<창 1:2 ‘아마르 엘로힘 하야 오르’(빛이 있어야.) - ‘하야 오르’(빛이 생겼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레마)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레마’(ῥήμα)는 선포된 말씀이다.

‘로고스’(λόγος)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계획, 진리라면, ‘레마’(ῥήμα)는 선포되어 그 뜻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뜻한다.

<롬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로고스’는 읽고 끝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듣고’(ἀκούω 아쿠오) 순종해야 할 살아 있는 말씀이다.

같은 로고스라도,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불처럼 다가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있다.

그것이 ‘레마’(ῥήμ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로고스’(λόγος) 안에는 이미 ‘레마’(ῥήμα)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뜻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말씀’(로고스)으로 표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를 이루셨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 3. “계셨고”(ἦν. 엔)

여기서 ‘ἦν’(엔)은 헬라어 동사 ‘εἶμι’(나는 ~이다)의 과거형이다.

그러나 이 과거형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계속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요한은 이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선재성’, 즉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πατήρ ἑλωιμ)을 뜻하며, 더나가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로고스)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즉 요한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ζωή. 조에)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 ‘조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서 창조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φῶς. 포스)이다.

이 “빛”(φῶς. 포스. ἄγ. 오르)은 창1:3에서 나타남으로 우주는 운행되기 시작했다.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다. 히브리어 ‘오르’(אור)는 단순한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고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세기의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 자체이심을 선언하신 것이다.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내는 ‘발광체’(ἡλιος 마오르)일 뿐이다.

그것들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 역사를 운행하는 권세, 그 중심에 바로 ‘빛’이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 안에서 이 빛은 역사한다.

‘엑수시아’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통치권과 주권적 권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빛은 단순히 밝히는 빛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다. 우주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곧 ‘빛’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가운데 살아가며 삶의 길을 인도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표현에서 ‘비치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빛이 과거에 한 번 비추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어느 시대에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서 “깨닫다”(καταλαμβάνω 카탈람바노)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지 못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지배하지 못하다’. ‘억누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즉 빛은 항상 비추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요3:19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가?>

#### 1. 메시아에 대한 무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구원자. 가난을 끝내고 풍요를 가져다줄 경제적 구원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민족적 지도자인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겼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판단하였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 2.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심 때문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난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율법의 근본 뜻을 깨달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위선과 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성육신에 대한 무지였다.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광의 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들은 능력과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타나셨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의 어린양이었다.

빛은 이미 세상에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정된 신앙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이다.

빛은 이미 세상에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정된 신앙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에 있다.

빛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빛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께로부터”(παρά, 파라)는 ‘곁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라는 의미이다.

“보내심을 받은”(ἀποστέλλω, 아포스텔로)은 ‘ἀπό’(~로부터)+‘στέλλω’(보내다)의 합성어로, 확고한 지시를 받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파송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 속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막1:2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이었다.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때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사도 바울 또한 <롬1:1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κλητός ἀπόστολος /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는 자신의 직무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울에 대해 <행9:15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ἐκλογή, 에클로게)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여 세운 것을 의미하며,

“그릇”(σκεῦος, 스키투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용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하여 보낸 사역자였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선택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 **Abraham** :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명.
- **Isaac** : 국가의 기본인 백성을 위한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사명.
- **Jacob** : 이스라엘 기초적인 12지파를 형성.
- **Joseph** :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위한 사명.
- **Moses** : 출애굽과 율법으로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윗, 12 사도와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사도 (ἀπόστολος, 아포스톨로스)>

“사도”(ἀπόστολος)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이며 파송자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다.

즉 사도의 직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보낸 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보냄을 받은 사명자에게는 보낸 자의 권위가 부여되며,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특사라고 할 수 있다.

대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특사는 보낸 자의 뜻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도 사도는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한 자의 대리인”으로 이해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요17:3 하나님이 보내신 자(ἀπόστολος)>라고 하셨다.

따라서 12사도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었다.

가롯 유다 역시 처음에는 이 사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다. (요13장 참조)

**요 1:13**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께로부터 난 자” (ἐκ γεννᾶω 에크 겐나오) : ~로부터 태어난 자.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단순한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존재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순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존재하는 자이다.

성경에서 “보냄”은 단순한 파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존재적 사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보냄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택하여 세워 사명의 중심에 두시고, 어떤 이는 역사와 상황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을 맡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크 겐나오”(ἐκ γεννᾶω)로 표현되는 자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며, 그들을 각기 필요한 자리와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13절**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낸 자들...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역이 맡겨진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졌고, 사사들은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도자들이었으며,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역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구속사의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서 쓰임 받은 자들이다.

<삿6:14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에서, “보내다”(נָחַח 살라흐)는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비된 자를 상황 속에서 사용하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뿐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

요셉 시대의 바로 왕, 모세 시대의 바로 왕, 앗수르와 바벨론, 바사 제국들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한 도구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롬1:6-7 ‘부르심’(κλητός 클레토스)은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요 1:7-11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

“증거”(μαρτυρία 마르튀리아)는 법정 용어로서, 재판정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하는 공식적 증언을 의미한다.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개인의 해석이나 주장보다 사실에 대한 진실된 전달에 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따라서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빛이 아니라 “참 빛”(the true light)이라고 선언한다.

“참”(ἀληθινόν)은 단순히 거짓이 아닌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실재를 의미한다.

이 빛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는 구원의 범위가 민족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러나 피조 세계는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어둠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낸다.

<자기(ἑδία 이디아)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ἑδία)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영역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낯선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영적 무지와 죄에서 비롯된 거절이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는 단순한 자격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리, 통치적 권세,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어떤 지위를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권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거나 노력으로 얻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신분적 권한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권한을 의미한다.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로서 상속권을 가진 존재이다.

성경에서 자녀라는 개념은 단순한 존재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의미한다.

이 권세는 인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위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은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한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다. 먼저 “영접하는 자”(λαμβάνω 람바노)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감정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붙들다, 받아들이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기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이며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믿는 자”(πιστεύω 피스튜오)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탁하며 그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사명을 나타낸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접과 믿음은 서로 다른 두 행위가 아니라 같은 신앙의 두 측면이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신뢰이다.

※ 13절의 사람들에게는 12절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여 보낸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요3:16)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구원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와 주권에 따라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요3:18).

※ 1:6절에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12절의 조건들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응답과 순종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며, 그 순종 속에서 구원의 관계 역시 완성된다.

※ **엡 1:13** 구원의 복음을 듣고~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 7:1-3** 인침을 받은 자들.

이 인침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종교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를 의미한다.

“인침심”(σφραγιζω 스프라기조) : 인정하다. 확증하다. 소유로 삼다.

성경에서의 인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령의 인침심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의 관계 안에 두셨다는 법적·언약적 선언이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심”이며, 이러한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3:16)

“믿음”(πιστις 피스티스, Faith) :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신다.

즉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신뢰이다.

Q. 한번 인침심을 받으면 영원한가?

성경은 성령의 인침심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침심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보존되는 은혜의 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신앙에서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고를 준다.

<히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παραπλῖτω 파라핍토)은 ‘παρα’(곁에서) + ‘πλῖτω’(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 떨어지는 것, 즉 바른길에서 떠나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리에서 돌아서는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최초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락’은 단순한 인간적 약함이나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타락한 자는 왜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죄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한다.

“모독”(βλασφημέω 블라스페메오) : 비방하다, 고의적으로 대적하다.

단순한 무지에서 나오는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행위.

<막3: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으로 훼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여 마귀의 신앙처럼 전하거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거짓 선지자, 이단 등)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실제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Incarnation”(성육신)은 예수님께서 본질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의미이다.

“육신”(σάρξ 사르크스)은 단순히 육체라는 의미를 넘어 몸을 가진 인간으로, 곧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의 실존을 가리킨다.

“몸”(σῶμα 소마)이 인간의 물리적 몸을 가리킨다면, “육신”(σάρξ)은 인간의 존재 전체, 곧  
 인간의 생명과 삶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몸”(σῶμα)이 ‘혼’의 지배를 받듯이 ‘육신’과 ‘몸’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σκηνώω ἐν ἡμῖν 스케노오 엔 헤민).

“거하시매”(σκηνώω)는 장막을 치다, 장막 가운데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 그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다.

요한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로 된 성막이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안에”(ἐν)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만을 가진 전치사가 아니라 함께, 관계 속에서, 가운데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하나님이 단지 인간 세계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임재란 단순히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인간을 품고 함께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성막이며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빛이나 광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계시를 의미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임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나타내는 표였다.

이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독생자’(μονογενής 모노게네스)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오직 하나뿐인 분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광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서로 분리된 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출34:6)으로 계시하셨다. 요한은 그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창조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직접 나타내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이며 하나님 자신이 인간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다.

**요 1:18**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μονογενής θεός 모노게네스 데오스).

“독생자”(μονογενής υἱός 모노게네스 휘오스) : 단 하나의 유일한 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여기서 ‘μονο’(모노)는 ‘하나,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γενής’(게네스)는 본질과 관계된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μονογενής’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을 의미한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라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까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성과 본질적 연합을 의미한다.

‘품속’이라는 표현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일치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요10:30**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 역시 단순한 목적의 일치나 사역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일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1-2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πρὸς 프로스)는 단순히 곁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 즉 인격적 교제와 깊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계셨다’(ἦν 엔)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영원한 존재 상태를 강조하는 동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증거한다면, 요한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선지자나 메시아적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 곧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 1:19-34** 세례요한이 구약 말씀과 함께 “예수 = 그리스도 =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함.

세례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기다려 온 메시아의 도래를 확인하는 증언의 사역이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 단순한 예언적 외침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선언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나타났고(창22장),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며(출12장),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사53:7)으로 예언하였다. 세례요한의 이 선언은 바로 그 모든 예표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넘어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지고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속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희생 제물이시다. 세례요한은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하였다.(요1:32-33)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요 1:35-51**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단순한 인간적 만남이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부르심이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먼저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안드레는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였다. 이는 제자의 부르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증거와 만남을 통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다.

‘게바’(Κηφᾶς)는 아람어로 ‘반석’을 의미하며 헬라어로는 ‘베드로’(Πέτρος)라 불린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명을 규정하시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성격과 장차 그가 감당하게 될 역할을 알고 계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증거를 통해 준비된 마음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따라서 제자의 부르심은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며, 준비된 자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 <제자 (μαθητής 마테테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단순히 몇 사람을 세우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체적인 역사 속 인물에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셨고, 이제 그 장막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 부른다.

“제자”(μαθητής, 마테테스)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를 의미하며 특정한 교사나 학파 혹은 종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제자란 단순한 소속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따르는 존재를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주로 12사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이 표현을 더 넓게 사용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였다(눅6:13, 요1:35-50).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며 믿음과 순종 안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제자와 구속사적 사명을 받은 제자를 구분하여 말한다.

특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한 추종자와 구속사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 <눅 6:13 그 제자를 부르시어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먼저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열둘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즉 제자 가운데서 특별한 선택을 통해 사도가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신 제자들은 12사도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이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러 자료와 전언을 통해 사건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표현보다 ‘사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약 37회).

이는 초대교회가 사도적 증언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자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무리”(ὄχλος 오클로스)이다. 이는 군중,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제자라 부를 수 있다.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사도”(ἀπόστολος)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어 부르신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구속사적 직분이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바울)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을 맡았다.

사도직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으로서 역사 속에서 완성되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와 동일한 권위와 계시적 기초를 가진 존재는 성경적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다. 사도적 사명이라는 의미로 사역적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사도”라는 개념은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사도는 교회의 터를 놓는 기초였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며,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다.

#### -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

<계 1:8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Αλφα)는 헬라어 첫 글자이며, ‘오메가’(Ω)는 24번째 마지막 글자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과 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시간의 끝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전체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의미한다.

<계 21:6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의 하나님’-

“이루었도다”(γινωμαι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이루어지다, 존재하다, 완성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 이후 구속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완성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처음’(ἀρχή 아르케)은 단순한 시간적 시작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시작되는 근원과 출발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신다.

‘마지막’(τέλος 텔로스)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여셨을 뿐 아니라 그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또한 “생명수 샘물”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며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나타낸다.

<계 22:12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심판의 하나님’-

여기에서 “처음”(πρῶτος 프로토스)과 “마지막”(ἔσχατος 에스카토스)은 시간의 순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처음이 되시며 동시에 마지막이 되신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출발점이시며 동시에 역사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면 “시작”(ἀρχή 아르케)과 “마침”(τέλος 텔로스)은 시간적 순서보다 목적론적 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은 목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완성이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그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성육신으로 시작된 구원의 경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언은 단순히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속을 거쳐 심판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속을 지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뜻이 드러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심판과 완성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이며 그 모든 시작과 완성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결국 한 가지 중심 진리를 증거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속주이시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으로 나타났고 결국 완성으로 나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고 마침내 완전한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단순한 복음서의 서론이 아니라 창조에서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는 장이다.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